

勞淋의 治方에 關한 文獻的 研究

宋 峰 根**

〈目 次〉

- I. 序 論
- II. 勞淋의 臨床的 特徵
- III. 勞淋의 治方分析
- IV. 總括 및 考察
- II. 結 論

I. 序 論

勞淋은 頻尿, 難尿, 排尿痛, 尿急, 尿後重과 下腹痛 등의 尿路症狀을 보이며 특히 과로하거나 피곤하면 증상이 나타나는 임상적 특징을 가지는 비뇨기 질환이다. 東洋醫學에서 요로증상을 主訴로 하는 淋病의 하나로 취급되는 勞淋은 集驗方에서 최초로 세분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의 醫書에서는 “尿留莖內 數起不出 引小腹痛 小便不利 勞倦即發” “小便淋瀝 水道澁痛” 등의 임상증상을 가지는 것으로 기재되고 있다.

이러한 勞淋은 만성요로감염 및 전립선 질환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비뇨기과 외래환자의 10% 에서 요로증상을 호소하고 남자의 경우 35% 정도에서 전립선염에 罹患한다는 보고

로 볼 때 발생빈도가 높은 질환이며 이에 따른 치료도 증시된다 하겠다.

그러나 勞淋에 대한 治方이 의서마다 다르므로 勞淋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는 이들 治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저자는 淋病 중 勞淋의 治方으로 역대 중요 의서에 수재된 처방들을 분석하여 사용빈도와 사용약물의 종류와 분류 등을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勞淋의 臨床的 特徵

1) 原因

勞淋은 대부분 과로로 유발된다. 즉 勞力過度(負重遠行)나 思慮過度로 脾勞 또

*圓光大 韓醫大 附屬 光州韓方病院

는 心勞가 되거나 勞傷腎氣나 房勞過度로 腎勞가 되어 발병한다. 이 枯渴되거나 心腎不交로 腎氣不溫하여 이밖에도 過度한 發汗이나 出血로 津液 도 발병하며 淋病이 오랫동안 치료가 잘 못된 경우도 勞淋이 된다.

표 I. 勞淋의 原因과 症狀

書名	原因	症狀
中藏經		小便淋瀝不絕 如水之滴漏而不斷絕
諸病源候論	勞傷腎氣而生熱成淋	尿留莖內 數起不出 引小腹痛 小便不利 勞倦即發
千金方		勞倦即痛引氣衝下
普濟方	勞傷腎氣 腎虛膀胱有氣不傳化	小便淋瀝 水道澁痛 勞即發 小腹尿留於莖內 數起不出 引痛
奇效良方		遇房勞即發 痛引氣衝
醫學入門		痛引氣衝 遇勞即發 痛墜及尻
萬病回春		勞倦即發
景岳全書		勞倦即發 痛引氣衝下
醫宗必讀	勞倦而成 多屬脾虛 脾勞 腎勞之分 脾勞-多思慮 負重遠行 應酬紛擾 腎勞-強力入房 或 施泄無度	
證治棊補	脾腎困敗之狀	遇勞即發 痛引氣衝 又名 虛淋
張氏醫通	過勞, 脾勞 腎勞	
醫學心悟	勞力辛苦而發 此爲氣虛	
沈氏尊生書	多思慮 負重遠行 勞于脾也 思慮亦傷脾, 腎勞	
類證治裁	思慮煩擾 負重遠行 勞於脾, 專因思慮, 強力入房 勞於腎, 老人精衰入房	
醫學實在易	因勞而得	
筆花醫鏡	勞力辛苦 氣虛不化	
醫學從衆錄	從勞役而得 氣化不及洲都	
醫學衷中參西錄	勞力過度 勞心過度 房勞過度 而暗生內熱	小便不能少忍 便後乃欲便 常常作痛

2) 症狀

勞淋의 증상은 淋病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點滴尿(小便淋瀝不絕 如水之滴漏而不斷絕)와 頻尿(數起不出, 便後乃復欲便), 難尿(小便不出 小腹急痛), 排尿痛(水道澁痛), 尿急(小便不能少忍), 尿後重(尿留於莖內) 및 下腹痛(引小腹痛, 痛引氣衝下) 등을 보이는 동시에 피곤하거나 과로하면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勞倦即發, 遇勞即發)을 가진다. 따라서 병세가 잘 호전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며 또 원인에 따라 각기 특징적인 전신증상을 수반한다.(註)
역대 중요 의서에 표현된 勞淋의 원인과 증상을 종합하면 표 I 과 같다.

III. 勞淋의 治方分析

표 III 勞淋 治方의 構成

出典	行年度	治方名	備考
外臺秘要	752	石葦散, 滑石外	
太平聖惠方	987	木通散, 柴胡散, 鷄蘇飲子, 滑石散, 葵子外, 石葦外, 滑石外	
普濟方	1406	地黄丸, 人蔘飲, 黃耆湯, 地黄湯, 兔絲子丸, 歸芍散, 榆皮散, 止夜起散,	太平聖惠方과 동일 처방
		木通湯, 柴胡散, 滑石散, 鷄蘇飲子, 葵子外	
古今醫統	1556	補中益氣湯, 茯苓調血湯, 鹿角膠丸	
醫學入門	1575	透膈散, 鹿角霜丸, 四物湯 加 知母 黃栢 滑石 琥珀	
證治準繩	1602	地黄丸, 黃耆湯,	歸芍散과 동일 처방
		白芍藥丸	
東醫寶鑑	1610	四物湯 加 知母 黃栢 滑石 琥珀 補中益氣湯, 益元固真湯	

(註1) 腎勞의 경우 腰痛, 五心煩熱, 舌紅少苔의 증상이 있고 心勞의 경우 心悸短氣, 困倦乏力, 口乾舌燥, 失眠多夢의 증상이 있으며 脾勞의 경우 精神困憊, 少氣懶言의 전신증상을 수반한다.(黃文東, 實用中醫內科學, 279)

淋病에 대한 治方은 唐代 千金方에 처음으로 收載되었으나 勞淋의 治方은 外臺秘要에 수재된 것이 효시이다.

그후 최근까지의 문헌에 나타난 37首의 勞淋에 대한 治方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보았다.

1) 勞淋의 治方 種類

조사된 역대 의서에 나타난 勞淋의 治方은 補中益氣湯 등의 37首 였으며 시대적으로 金元時代 이전의 治方은 清熱利尿를 위주로 한 처방이 주종을 이루나 明代 이후에는 脾勞, 心勞, 腎勞 등의 원인에 따라 治方을 세분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헌에 나타난 勞淋의 治方 및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 II. III)

勞淋의 治方에 關한 文獻的 考察

醫宗必讀	1637	補中益氣湯 五苓散 (分進) 歸脾湯 生地黄丸, 黃耆湯 金匱腎氣丸	脾勞 專因思慮 腎勞 腎虛而寒
證治彙補	1687	清心蓮子飲	
張氏醫通	1695	補中益氣湯 加 車前子 澤瀉 六味地黄湯 加 麥門冬 五味子	脾勞 腎勞
醫學心悟	1732	補中益氣湯	
醫宗金鑑	1742	補中益氣湯 合 五苓散 清心蓮子飲 匱腎氣丸 知栝地黄湯	脾勞 思慮傷心 腎陽虛 腎陰虛
沈氏尊生書	1773	補中益氣湯 五苓散 (分進) 歸脾湯 生地黄丸, 黃耆湯, 益元固真湯	脾勞 思慮 腎勞
筆花醫鏡	1824	補中益氣湯	
類證治裁	1839	補中益氣湯 合 車前子 澤瀉 歸脾湯 專因 生地黄丸 加 麥門冬 五味子 腎氣丸	脾勞 思慮 腎勞 老人精衰入房
醫學從衆錄	1846	大分清飲 合 補中益氣湯	
醫學衷中參西錄	1934	生山藥 外	
中國醫學大辭典	1975	補中益氣湯 加 車前子 澤瀉 補中益氣湯 五苓散 (分進) 歸脾湯	傷脾
		六味地黄湯 加 麥門冬 五味子 生地黄丸, 黃耆湯, 兔絲子丸, 金匱腎氣湯, 知栝地黄湯, 清心蓮子飲	傷腎
			傷心
中醫內科學	1982	右歸飲, 知栝地黄湯, 大補陰丸 補中益氣湯	
實用中醫內科學	1986	六味地黄丸 金匱腎氣丸 兔絲子湯 清心蓮子飲 補中益氣湯 歸脾湯	腎勞—腎陰虛 腎勞—腎陽虛 腎勞—腎氣虛 心勞 脾勞 脾勞—心脾兩虛
實用中醫腎病學	1990	無比山藥丸	

勞淋의 治方에 關한 文獻的 考察

丑II. 勞淋의 治方

治方名	構 成
(加味)腎氣丸	熟地黄 山藥 山茱萸 白茯苓 牡丹皮 澤瀉 附子 肉桂 牛膝 車前子
鷄蘇飲子	鷄蘇 木通 葵子 白毛根 木香 瞿麥
歸脾湯	當歸 龍眼肉 山棗仁 遠志 人蔘 黃耆 白朮 茯苓 木香 甘草
歸芍散	當歸 白芍 鹿茸 熟地黄
葵子 外	葵子 滑石 芒硝 桂心 旱蓮草 白毛根 大黃
金匱腎氣丸	熟地黄 山藥 山茱萸 白茯苓 牡丹皮 澤瀉 附子 肉桂
鹿角膠丸	鹿角膠 沒藥 油髮灰
鹿角霜丸	鹿角 白茯苓 秋石
大補陰丸	知母 黃柏 龜板 熟地黄
大分清飲	茯苓 澤瀉 木通 猪苓 梔子 枳殼 車前子
木通散	木通 石葦 王不留行 滑石 白朮 瞿麥 鷄蘇 葵子 赤茯苓 木香 當歸 赤芍
無比山藥丸	山藥 肉從蓉 熟地黄 山茱萸 茯苓 兔絲子 五味子 赤石脂 巴戟 澤瀉 杜沖 牛膝
補中益氣湯	黃耆 人蔘 甘草 白朮 陳皮 當歸 升麻 柴胡
茯苓調血湯	赤茯苓 赤芍 川芎 半夏 前胡 柴胡 青皮 桑白皮 枳殼 桔梗
四物湯	熟地黄 當歸 川芎 白芍
生山藥 外	生山藥 生芡實 知母 阿膠 生杭芍
(生)地黄丸	生地黄 黃耆 防風 遠志 茯苓 鹿角 黃芩 瓜蒌仁 人蔘 石葦 當歸 赤芍 戎鹽 蒲黃 車前子 滑石 甘草
石葦 外	石葦 滑石 瞿麥 王不留行 葵子
石葦散I	石葦 瞿麥 冬葵子 滑石
石葦散II	通草 石葦 王不留行 滑石 甘草 白朮 瞿麥 芍藥 葵子
柴胡散	柴胡 葵根 甘草 當歸 白毛根 石葦 木香 榆皮 木通
五苓散	澤瀉 白茯苓 白朮 猪苓 肉桂
右歸飲	熟地黄 山藥 山茱萸 枸杞子 杜沖 當歸 兔絲子 肉桂 附子 鹿角膠
榆皮散	榆皮 黃芩 瞿麥 赤茯苓 通草 鷄蘇 郁李仁 山梔子
六味地黄湯	熟地黄 山藥 山茱萸 白茯苓 牡丹皮 澤瀉
益元固真湯	甘草 山藥 澤瀉 人蔘 白茯苓 蓮肉 巴戟 升麻 益智仁 黃柏
人蔘飲	人蔘 熟地黄 五味子 郁李仁 梔子仁 瞿麥 木通 木香 榆皮 檳榔
知柏地黄湯	熟地黄 山藥 山茱萸 白茯苓 牡丹皮 澤瀉 黃柏 知母
止夜起散	益智仁
地黄湯	熟地黄 人蔘 石葦 王不留行 冬葵子 車前子 桂枝 甘遂 木通
清心蓮子飲	黃芩 麥門冬 地骨皮 車前子 蓮肉 白茯苓 黃耆 人蔘
兔絲子湯	兔絲子 茯苓 山藥 蓮肉 枸杞子
兔絲子丸	兔絲子 人蔘 黃耆 滑石 芍藥 木通 車前子 黃芩 冬葵子
透膈散	硝石 葵花
滑石 外	滑石 王不留行 冬葵子 車前子 桂心 甘遂 通草 石葦 麻子仁
滑石散	滑石 葵子 鐘乳粉 桂心 木通 王不留行
黃耆湯	黃耆 人蔘 滑石 五味子 白茯苓 磁石 旱蓮草 桑白皮 黃芩 枳殼

勞淋의 治方에 關한 文獻的 考察

2) 治方 出現 頻度

勞淋의 治方이 수재된 21권의 의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治方은 補中益氣湯 加

味方으로 14회 출현하여 17.5%의 占有度와 66.6%의 出現頻度を 보였고, 六味地黃湯 加味方(12회), 生地黃丸(6회), 歸脾湯(5회), 黃耆湯(5회)의 순이었다.

표Ⅳ. 治方 出現 頻度

治方名	加減例	回數	總計	占有度*	出現頻度**
補中益氣湯 加味方	補中益氣湯	5	14	17.5	66.6
	補中益氣湯 + 五苓散	4			
	補中益氣湯 + 車前子 澤瀉	4			
	補中益氣湯 + 大分清飲	1			
六味地黃湯 加味方	金匱腎氣丸	4	12	15	57.1
	六味地黃湯 (+ 麥門冬 五味子)	3			
	知栢地黃湯	1			
	加味腎氣丸 右歸飲	1 1			
生地黃丸	生地黃丸	5	6	7.5	29
	生地黃丸 + 麥門冬 五味子	1			
歸脾湯		5	5	6.25	23.8
黃耆湯		5	5	6.25	23.8
清心蓮子飲		4	4	5	19
木通散 外	10종 治方이 각 2회 씩	10	20	25	9.5
石葦散 外	14종 治方이 각 1회 씩	14	14	17.5	4.7

* 占有度: 처방 출현 총 누계 80회 중 차지 하는 비율

** 出現頻度: 조사된 의서중 처방이 수록된 21권의 의서에서 차지하는 처방의 빈도

3) 使用 藥物의 種類

勞淋의 治方으로 조사된 37首의 治方 및 加味方에 사용된 藥물의 種類는 人蔘 의

84종 이었으며 治方 출현 총 누계 80 회 人蔘이 40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黃耆, 當歸, 茯苓, 甘草의 순이었다.(표Ⅴ)

표Ⅴ. 사용 藥물의 種類 및 빈도

藥名	回數	藥名	回數	藥名	回數	藥名	回數	藥名	回數
人蔘	40	芍藥	16	旱蓮草	7	通草	4	桂枝	1
黃耆	36	陳皮	14	瓜蒌仁	6	甘遂	3	檳榔	1
當歸	34	山茱萸	13	白毛根	6	鹿角霜	3	秋石	1
茯苓	33	木通	13	防風	6	梔子	3	硝石	1
甘草	30	木香	12	桑白皮	6	益智仁	3	沒藥	1

勞淋의 治方에 關한 文獻的 考察

滑石 26	茯苓 12	附子 6	川芎 3	髮灰 1
白朮 26	遠志 11	戎鹽 6	巴戟 3	青皮 1
澤瀉 21	牡丹皮 11	蒲黃 6	大黃 2	半夏 1
車前子 20	五味子 10	生地黄 6	芒硝 2	桔梗 1
熟地黄 20	瞿麥 9	鷄蘇 5	鐘乳粉 2	龜板 1
黃芩 17	王不留行 9	兔絲子 5	麻子仁 2	阿膠 1
柴胡 17	鹿茸 8	山棗仁 5	郁李仁 2	苧實 1
山藥 17	黃栢 8	龍眼肉 5	枸杞子 2	杭芍 1
冬葵子 16	蓮肉 7	磁石 5	琥珀 2	肉從蓉 1
石葦 16	麥門冬 7	猪苓 5	牛膝 2	葵花 1
升麻 16	枳殼 7	地骨皮 4	杜沖 2	赤石脂 1
肉桂 16	知母 7	榆皮 4	葵根 2	前胡 1

4) 使用 藥物의 分類

약물을 분류한 바 利水藥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補氣藥, 補血藥, 清熱藥의 순이었다.(표 VI)

治方 출현 총 누계 80회 중 5회 이상 사용된

표 VI. 사용 약물 분류

分類	藥 品 名					累 計
利水藥類	茯苓(33) 石葦(16)	滑石(26) 木通(13)	澤瀉(21) 瞿麥(9)	車前子(20) 桑白皮(6)	冬葵子(16) 猪苓(5)	165
補氣藥類	人蔘(40)	黃耆(36)	甘草(30)	白朮(26)	山藥(17)	149
補血藥類	當歸(34)	熟地黄(20)	芍藥(16)			70
清熱藥類	黃芩(17) 知母(7)	牡丹皮(11)	黃栢(8)	生地黄(6)	白毛根(6)	55
安神藥類	茯苓(11) 龍眼肉(5)	遠志(11)	蓮肉(7)	山棗仁(5)	磁石(5)	45
解表藥類	柴胡(17)	升麻(16)	防風(6)	鷄蘇(5)		44
補陰藥類	山茱萸(13)	五味子(10)	麥門冬(7)	旱蓮草(6)		36
理氣藥類	陳皮(14)	木香(12)	枳殼(7)			33
補陽藥類	鹿茸(8)	附子(6)	兔絲子(5)			
理血藥類	王不留行(9)	蒲黃(6)	15			
其 他	戎鹽(6)	瓜蒌仁(6)	12			

IV. 總括 및 考察

로 수재되었으며 그후 여러 처방들이 의가에 따라 제시되었다. 이들 처방들을 분勞淋에 대한 治方은 外臺秘要에서 처음으로 석하면 金元 이전에는 원인에 대한 구별

없이 利尿 및 淸熱을 위주로 처방이 제시되었으나 明代에 들어서는 크게 勞淋의 원인이 되는 脾勞, 腎勞 및 心勞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治方이 사용되었다. 脾勞에는 補中益氣湯 加味方, 腎勞에는 六味地黃湯 加味方 등이 주로 사용되었고 心勞에는 歸脾湯 또는 淸心蓮子飲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밖에 生地黃丸과 黃耆湯도 자주 사용되었으나 補中益氣湯 加味方 이나 六味地黃湯 加味方이 많아 補脾 및 補腎에 증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治方에 사용된 약물은 人蔘, 黃耆, 當歸, 茯苓, 甘草, 滑石, 白朮, 澤瀉, 車前子, 熟地黃, 冬葵子 등 85 종이었으며 사용 빈도가 많은 약물은 주로 利水藥類와 補氣藥類가 主宗을 이루고 補血, 淸熱, 安神藥類가 다수 사용되었는데 勞淋의 치료에는 利尿 및 淸熱 외에도 補脾, 補腎, 補心에 역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겠다.

東洋醫學에서 일반적으로 補法은 체질을 증강하고 허약상태를 개선하는 방법이며 虛證疾患 및 慢性疾患의 치료에 이용되며 현대의학적으로는 면역기능을 도우며 내분비를 조절하고 抗病力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補腎의 治法은 체액 및 세포면역의 기능을 촉진하여 신장 병변의 收復을 돕는 면역 조절 기능과 신장 병리변화의 개선 작용, 배뇨촉진 및 대사산물의 배설 촉진, 신성고혈압의 개선과 뇌하수체 및 부신피질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내분비 조절 작용을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補脾의 治法은 소화흡수력의 촉진, 자율신경계의 조절, 면역기능의 조절, 내분비 기능 촉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六味地黃湯은 滋陰補腎의 方劑로 腎陰不足으로 인한 腰痛, 眩暈, 耳鳴, 盜汗, 遺精, 骨蒸潮熱, 小便淋瀝 등의 증상에 사용되어온 처방으로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압

강하, 신기능 개선 작용과 진정, 이뇨 및 혈당강하 작용, 암세포 억제 작용이 있으며 부신피질기능의 항진과 교감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補中益氣湯은 補氣升陽의 대표적 방제로 脾胃氣虛로 인한 四肢乏力, 飲食無味와 脫肛子宮下垂, 胃下垂, 慢性泄瀉, 痢疾에 사용되어온 처방이며 최근 인체의 단백질 대사를 개선하고 빈혈을 방지하여 체력을 증강시키며 자궁흥분작용이 있으며 황색포도상구균의 억제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약물의 사용은 淋病의 치료에 있어 氣를 補하면 脹滿이 심하여지고 血을 補하면 小便澀의 증상이 더욱 심하여지고 熱을 補하면 증상이 더욱 악화하여 소변 및 대변 까지도 不通하게 되므로 補藥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許의 언급과 모순되나 이는 血淋이나 熱淋과 같은 급성증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勞淋은 만성 질환으로 인식하여 脾, 腎, 心의 세 장기를 補하여 치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勞淋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만성요로감염 및 만성전립선질환이 거론 되는데 이들 질환에 대하여 勞淋의 治方이 우수한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서양의학에서 만성요로감염은 만성방광염, 만성요도염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질환의 치료는 원인균에 대한 감별과 이에 따른 장기간의 항균제 투여 및 예방요법과 수분섭취량을 늘이도록 하고 있다. 만성전립선염의 경우에는 일반요법으로 온수좌욕을 권장하고 배뇨자극증상 완화를 위한 항염증제 및 항콜린제를 장기간 투여 하며 자극성 음식이나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장시간의 坐業을 피하며 排便을 순조롭게 하며 전립선을 마사지 하도록 권장하는 이외의 특별한 치료는 없으며 증상개선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수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徐 등은 知栢地黃湯, 兔絲子丸, 右歸

飲, 金匱腎氣丸, 六味地黃湯 등을 사용하여 腎虛型的 慢性전립선염에 좋은 효과를 얻었다고 보고하고 있고, 李는 補中益氣湯, 知栢地黃湯으로 慢性전립선염을 치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戴 등은 慢性요로감염에 知栢地黃湯, 補中益氣湯, 兎絲子湯, 腎氣丸 등을 사용하여 매우 좋은 효과를 얻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葉 등은 知栢地黃湯, 補中益氣湯, 右歸飲으로 勞淋으로 분류된 요로감염을 치료하여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 勞淋의 원인은 脾勞, 腎勞, 心勞 등으로 대별되며 치료도 補脾, 補腎, 補心 등을 위주로 하며 특히 補脾와 補腎을 중시하여 補中益氣湯 加味方이나 六味地黃湯 加味方 등을 많이 사용하였고 또 이들이 慢性요로감염 및 전립선염에 좋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V. 結 論

역대 의서에 나타난 勞淋의 治方 37首를 조사하여 얻어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勞淋의 治方으로는 補中益氣湯 加味方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이 六味地黃湯 加味方 이었다.
2. 勞淋의 治方에 사용된 약물은 총 85종이었으며 人蔘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黃耆, 當歸, 茯苓의 순서로 사용이 감소되었다.
3. 사용된 약물은 利水藥類가 가장 많았고 補氣藥類, 補血藥類, 清熱藥類, 安神藥類의 순 이었다.
4. 勞淋의 치료에는 補脾와 補腎이 중시되었으며 이 治法은 慢性요로감염 및 慢性전립선질환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1.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p.174-175, 1980
2. 김영균: 비뇨기과학, 서울, 고려의학, pp.164-170, 1991
3. 杜鎬京: 東醫腎系學,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p.144-145, 1991
4. 李鶴松: 泌尿器科學, 서울, 東明社, p.152, 1975
5. 華陀: 中藏經, 臺北, 自由出版社, pp.34, 1972
6. 巢元方: 諸病源候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467, 1983
7. 孫思邈: 千金方, 서울, 大星文化社, p.278, 1984
8. 王燕: 外臺秘要, 서울, 成輔社, p.704, 1975
9. 王懷隱: 太平聖惠方, 서울, 成輔社, pp.1780-1790, 1980
10. 朱肱: 普濟方, 서울, 成輔社, pp.3254-3256, 1981
11. 徐春甫: 古今醫統, 臺北, 新文豐出版社, p.4451, 1978
12. 李挺: 醫學入門, 서울, 成輔社, p.387, 1978
13. 龔廷賢: 萬病回春, 臺北, 大中國圖書公司, p.243, 1975
14. 王肯堂: 證治準繩, 서울, 柳林社, pp.342-343, 1975
15. 張景岳: 景岳全書, 서울, 杏林書院, p.390, 1975
16. 李中梓: 醫宗必讀, 臺北, 文光圖書公司, pp.312-313, 1976

17. 李用粹：證治彙補，臺北，萬葉出版社，pp.454-457,1980
18. 張璐：張氏醫通，臺北，金藏書局，pp.281-284,1976
19. 吳謙：醫宗金鑑，北京，人民衛生出版社，p.1135,1980
20. 沈金龍：沈氏尊生書，臺北，自由出版社，p.296,1980
21. 林佩琴：類證治裁，臺北，旋風出版社，pp.448-449,1980
22. 陳修園：醫學實在易，北京，福建科學技術出版社，p.128,1982
23. 陳修園：醫學從衆錄，上海科學技術出版社，p.56,1984
24. 江筆華：筆花醫鏡，北京，上海科學技術出版社，p.68,1984
25. 程國彭：醫學心悟，香港，友聯出版社，pp.194-195,1961
26. 張錫純：醫學衷中參西錄，서울，翰成社，pp.172-173,1982
27. 王顯明：中醫內科辨證學，北京，人民衛生出版社，p.510,1984
28. 上海中醫學院：中醫內科學，香港，商務印書館，pp.111-117,1980
29. 黃文東：實用中醫內科學，北京，上海科學技術出版社，pp.276-285,1986
30. 張大寧：實用中醫腎病學，北京，中國醫藥科技出版社，pp.70,412,640-647,1990
31. 李有文：慢性前列腺炎治驗2例，中醫雜誌，2：43,1982
32. 徐福松：中醫治療慢性前列腺炎近況，中醫雜誌，4：60,1986
33. 戴長林：中醫和中西醫結合治療尿路感染196例療效分析，中西醫結合雜誌，9：526,1986
34. 葉景華：診治泌尿系感染129例的經驗體會，中醫雜誌，2：118,1984
35. 沈自尹：中醫理論現代研究，北京，江蘇科學技術出版社，pp.104-108,1975
36. 謝關：中國醫學大辭典，서울，金泳出版社，p.2590,1975
37. 游士勳：實用中醫方劑學，臺北，樂群出版社，pp.15-16,1984
38. 胡照明：中醫腎臟病學，北京，河南科技出版社，pp.30-34,1990